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령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3분 묵상

사랑 4

김영문 브루노 신부

누구는 나를 좋게 말하고
 누구는 나를 비난한다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미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순 없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더라도
 억울하더라도
 악으로 기울어 대응하지 않아야 한다

선하신 주님을 향하면
 영혼 안으로 사랑이 온다
 내 아픈 사랑이 주님께 봉헌된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5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61,028

08/01/2025 기준

현재 약속 금액 - \$ 29,935

현재 기부 금액 - \$ 28,295

현재 참가 인원 - 78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 대 그레고리오1세 교황

(St. Gregorius I Magnus, 540년? - 604년)



그 영원한 도시 로마, 찬란한 문명을 이룩하고 서구 사회의 핵심적 도시였던 로마는 410년경 게르만 부족인 서고트인들에 의해 약탈된다. 이후 서로마 제국은 몰락하기 시작했다. 이민족들이 수시로 서방을 침략했다. 하지만 이러한 혼란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등불의 역할은 교회에 맡겨졌다.

특히 빼어난 능력을 지닌 교황들이 등장해 교회와 세상 안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으며 그 중에서도 그레고리오 1세 교황의 업적은 가장 두드러진 것이었다.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에 있는 대 그레고리오 교황의 묘비에는 라틴어로 「Consul Dei」라고 적혀 있다. 「하느님의 집정관」이라는 이 호칭은 그가 사회와 교회 안에서 수행한 이중적인 역할을 함축적으로 묘사한다.

교황으로서 그는 혼란한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을 뛰어넘어 완수했다. 그럼으로써 그는 교회 역사에서 몇몇 인물에게만 부여되는 「대」(Magnus)라는 칭호를 얻었고, 암브로시오, 예로니모, 아우구스티노와 함께 『서방의 위대한 네 명의 교회 학자』로 칭송받았다.

대 그레고리오 교황은 540년경 로마에서, 펠릭스 3세(483~492)와 아가페토 1세(535~536) 등 두 명의 교황을 배출한 부유한 원로원 가정에서 태어났다. 귀족 계층의 고등 교육을 받았고 573년경에 로마 시장이 된 그는 575년 부친이 사망한 뒤 부모의 저택을 성 베네딕도 규율을 따르는 성 안드레아 수도원으로 만들어 수도생활을 시작했고 시칠리아에 있는 가족 소유의 토지에도 5개의 수도원을 설립했다.

그는 그러나 당시 교회가 자신의 능력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기에 더 이상 수도원에 머물지 못하고 교황으로부터 불리움을 받는다. 교황 베네딕도 1세(575~579)는 578년 그를 부제로 서품하고 이듬해 교황 펠라지오 2세는 그를 콘스탄티노플의 동로마 궁정에 교황사절로 파견하게 됐다. 그는 제국의 수도에 머물며 외교적, 정치적, 교회정치적 경험을 쌓아, 수많은 저명한 인물들과 평생 동안 관계를 맺었다.

586년경 로마로 돌아온 그는 교황 펠라지오 2세의 측근에서 교회 일을 하다가 590년 교황이 사망하자 수도자로서는 최초이며 유례없는 만장일치로 교황에 선출된다. 이때 그레고리오는 교황직을 맡기를 사양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여전히 수도생활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았던 때문이다.

그는 교황이라는 무거운 직책이 자신의 영성생활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신심이 깊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론보다는 실천적이었고 매우 좋지 못한 건강에도 불구하고 중세 교황권의 창시자로 불리울 만큼 활동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

그레고리오의 업적은 우선 로마와 「베드로의 세습령」에 대한 통치에서 나타난다. 교황청과 방대한 영역의 로마교회 소유지역에 대한 행정 업무를 재구성해 여기서 나오는 자산들을 난민들을 구제하는데 사용했다. 특별히 교황청의 부동산 재정비는 후일 교황령의 기초가 됐고 중세 때 교황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동로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거의 문제가 없었지만 595년 콘스탄티노플의 총대주교가 「전(全)교회의 총대주교」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해 심각한 긴장 관계에 있었고, 이에 대해 그는 오늘날까지 교황들이 사용하는 「종들의 종」이라는 소박한 칭호를 사용했다.

당시 롬바르드족의 이탈리아 침입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대부분의 이민족은 여전히 이교인이었다. 그레고리오 교황은 이에 롬바르드족과 평화적인 합의를 이루려고 노력했고 동시에 그들을 가톨릭 신앙으로 개종시키려고 했다.

영국에 선교사들을 파견한 일은 가장 뛰어난 업적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후대에 쓰여진 유명한 일화가 있다. 그는 어느 날 시장에서 깨끗한 피부와 금발에 얼굴이 잘 생긴 소년들을 보았다. 그레고리오는 이들의 용모에 감탄한 나머지, 그들을 영국인(Angli)이 아니라 천사들(Angeli)이라고 묘사했다.

그는 곧 개인적으로 영국에 선교사로 가려 했으나 주교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후 교황이 된 뒤 그는 비로소 596년 안드레아 수도원의 원장과 함께 40여명의 수도자들을 영국으로 파견했다.

많은 저서를 남긴 그레고리오 교황은 교회 쇄신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으며, 전례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성직자들의 생활을 개혁하기 위한 「사목지침서」(Liber Regulae Pastoralis) 4권은 사목 직무를 받는 동기, 덕목, 가르치는 방법 등을 다뤄 실제로 주교와 사제들의 영성과 사목에 대한 기초적인 각론서가 됐다. 그 외에 수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옴의 윤리」나 모든 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탈리아 교부들의 생활과 기적에 관한 대화집」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그레고리오 교황은 전례와 관련해 우리들에게도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그레고리오 성가 이전에 이미 교회의 미사 전례와 수도원들의 성무일도에서 오늘날과 거의 같은 내용의 미사곡을 비롯한 전례성가들이 불리웠다. 하지만 지방마다 제각각이던 미사 전례곡들과 성무일도에 사용되던 시편, 응송, 찬미가들을 전례력에 맞춰 다시 정리함으로써 그레고리오 성가집을 편찬했고, 그로써 교회의 전례음악이 그처럼 오랫동안 교회 안에 살아있게 된 것이다.

신심 깊은 영성가이자 탁월한 행정가, 정치가였던 대 그레고리오 교황의 재위 14년은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역사적 전환기에 교회의 중흥을 이룩한 위대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 축일 : 9월 3일**

공 지 사 항

1 미사 안내

8/31(주일) 11:30 미사는 Sunday School 여름캠프로 인해 없습니다. 착오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2 Special Collection(특별 헌금)

- 일시 : 8/23(토)-24(주일)
- 시애틀 대교구에서 실시하는 Catholic Home Missions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3 본당설립 50주년 묵주기도 50만단 봉헌

본당 설립 50주년을 위한 묵주기도 50만단을 봉헌합니다.

- 기간 : 7/1/2025 ~ 8/31/2026
- 대상 : 전신자

4 바다의 별 꾸리아 2025년 야외 친목회

- 일시 : 8/17(주일) 오후 1:00
- 장소 : 성당
- 대상 : 행동/예비단원, 협조단원, 단원의 가족
- 준비물 : 묵주, 뗏세라

5 구역장 월례회의

- 일시 : 8/24(주일) 교중미사 후 오전 11:30
- 장소 : 110호 교리실

6 야외미사 2025

“우리 모두 하나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2025년 야외미사를 개최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모두 하나되는 모습을 주님께 봉헌합니다.

- 일시 : 9/7/2025(주일) 9:00am-3:00pm
- 장소 : Cottage Lake Park
- ★ 9/7(주일)에는 야외미사 외에 미사가 없습니다.

7 가을학기 성경공부반 모집

(1) 축복받은 성경 읽기
공부에 대한 부담 없이, 주1회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팀 구성 : 창세기반, 탈출기반, 레위기반
- 대상 :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신자분들

(2) 가톨릭성서모임 그룹 공부
하느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생활화하는 그룹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 모집 과정 :
창세기 그룹 - 그룹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
탈출기 그룹 - 창세기 그룹 공부를 마친 분들

- ★ 모임 시작 : 9월 중순 이후
(반/그룹별로 추후 연락)
- ★ 담당 : 교육분과 최정필 미카엘
- ★ 신청 : 본당 사무실

8 양윤모 필립 신부님 특강

A FULPHILING WEEKEND WITH FR. PHIL
한인들의 신앙 여정에 영적인 충만함을 더해 줄 강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연을 통해 한인으로서의 고유한 신앙 여정을 되돌아 보는 가운데 믿음과 친교와 전례 안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9/13(토)
-오후 5:00 1부 : 강연
-오후 7:00 2부 : 찬양의 밤
-오후 8:30 3부 : 미사 (전신자 대상)
- 일시 : 9/14(주일)
-오전 11:30 미사/ 신부님과의 만남(4-12Gr)
-오후 4:00 신부님과의 만남(청년회) + 미사
풍요로운 강연을 위해 QR코드로 간단 설문을 받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특강으로 인해 9/13(토) 미사는

오후 8:30으로

시간이 변동됩니다.

착오 없이 주시기 바랍니다.

Scan Please!



입당송

보소서, 저희 방패이신 하느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굽어보소서. 당신
프락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천 날보다 더 좋습니다.

제1독서..... 예레 38,4-6.8-10
〈어찌자고 날 낳으셨나요? 온 세상을 상대로 말다툼을 벌이고 있는 이 사람을(예레 15,10).〉

화답송

◎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제2독서..... 히브 12,1-4
〈우리가 달려야 할 길을 꾸준히 달려갑시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알렐루야

복음 루카 12,49-53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영성체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성가 안내

입당성가: 1

예물준비 성가: 512, 510

성체성가: 160, 151

파견성가: 453

연중 제19주일(8/10)	토요 저녁(7:00)	주일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5명	69명	214명	명	58명	396명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원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경력맞사지,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욱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겐셋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패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강성수(가브리엘)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채널 등 425-774-1004/253-835-1004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Lina Wellness Clinic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다이어트약/영양 수액주사 Linawellnessclinic.com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더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모낭 줄기세포/탈모케어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편집 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유전성·스트레스·출산 후 browever.com/morivive 206-572-0633(이채연 릴리아나)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갈비·오징어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폴락 (떡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수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o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8/28/25) 유아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8/16/25)

교황청 신앙교리부와 문화교육부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옛것과 새것」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인공지능을 성찰하고 있는지, 또 인공지능을 선하게 이용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연재로 심기로 했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부·교황청 문화교육부 인공 지능과 인간 지성의 관계에 관한 공지

옛것과 새것 (Antiqua et Nova)

IV. 인공 지능의 개발과 사용을 인도하는 윤리의 역할

36. 이러한 숙고를 통하여, 인공 지능이 어떻게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 이에 응답하려면, 기술-과학 활동은 특성상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창의력의 인본주의적이고 문화적인 차원과 관련된 인간의 노력임을 유념하는 것이 중요하다.

37. 인간 지성 안에 새겨진 잠재력의 결실인 과학 탐구와 기술 능력 개발은 “보이는 피조물을 완전하게 하고자 남자와 여자가 하느님께 협력하는 것”의 일환이다. 동시에, 모든 과학 기술 성취는 궁극적으로 하느님의 선물이다. 그러하기에 언제나 인간은 하느님께서 부여하신 드높은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야 한다.

38. 우리는 기술이 어떻게 “인간을 위협하고 제한하는 많은 폐단들을 개선해 왔는지” 감사의 마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모든 기술적 진보 그 자체가 진정한 인간 발전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교회는 특히 생명의 신성함이나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그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을 반대한다. 인간의 모든 노력과 마찬가지로 기술 발전의 지향은 인간에게 봉사하고, “기술의 발전보다 더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더 큰 정의, 더 넓은 형제애, 사회관계에서 더 인간다운 질서”를 추구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 연합들도 기술 발전의 윤리적 함의에 대하여 함께 염려하며 이러한 발전

을 책임 있게 인도하는 윤리적 성찰을 점점 더 요청하고 있다.

39. 이러한 도전들에 대응하려면, 인간의 존엄성과 소명에 기반한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지도 원칙은 인공 지능에 관한 문제들에도 적용된다. 이 분야에서는 윤리적 차원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데, 시스템을 설계하고 그 사용 목적을 결정하는 주체가 바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기계와 인간 가운데 오직 인간만이 진정한 도덕적 행위자, 곧 자신의 결정에 자유를 행사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도덕적 책임의 주체이다. 기계가 아닌 바로 인간만이 도덕적 양심의 인도 아래 진리와 선과 관계를 맺고 있다. 도덕적 양심은 “언제나 선을 사랑하고 실행하며 악을 회피하도록” 인간을 부르고, “‘최고선’이신 하느님을 기준으로 하여 진리의 권위를 입증하는데, 인간은 이 최고선의 매력에 이끌린다.” 오직 인간만이 자기 자신을 충분히 인식하여 양심의 소리를 듣고 따르며 신중하게 식별하고 모든 상황에서 가능한 선을 추구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모든 것도 인격의 지성이 발휘되는 것에 속한다.

40. 인간 창의성의 모든 산물처럼 인공 지능도 긍정적 또는 부정적 목적을 향할 수 있다. 인공 지능은,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때, 인간 소명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모든 분야에서 그러하듯, 이 분야에도 악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다. 인간의 자유는 잘못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을 허용하기에, 이러한 기술에 대한 도덕

적 평가는 그 지향과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41. 이와 동시에, 목적만이 아니라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도 윤리적으로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시스템에 입력되는 인간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과 이해를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의 산물은 그 개발자, 소유자, 사용자, 규제자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세상을 형성하고 가치 차원에서 양심을 사로잡을” 힘을 지니고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 일부 기술 발전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 관계들과 권력의 역학을 강화할 수도 있다.

42. 따라서 인공 지능의 적용에 사용되는 목적과 수단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는 전반적인 관점을 모두 평가하여, 그러한 목적과 수단과 관점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남성과 모든 여성의 고유한 존엄성”이 “신형 기술들을 평가하는 핵심 기준”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술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사회 경제 분야를 포함하여 “인간 삶의 모든 수준에서 그 존엄성을 더 잘 표현하는 데에 도움이 될수록 윤리적으로 유익한 것으로 입증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술을 설계하고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선에 맞게 기술을 사용하도록 선도하는 데에도 인간 지성은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가톨릭 사회 교리의 보조성의 원리와 그 밖의 원리들에 따라 관리할 책임이 사회의 모든 계층에게 있는 것이 마땅하다.

인간의 자유와 의사 결정에 대한 도움

43. 인공지능이 언제나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최고 가치와 충만한 인간 소명을 지지하고 증진하도록 보장할 책무는 인공지능의 개발자, 소유자, 운용자, 규제자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사용자에게도 식별의 기준으로 작용한다. 이는 기술을 사용하는 그 모든 적용 단계에서도 늘 유효하다.

44. 이 지도 원칙의 의미에 대한 평가는 도덕적 책임의 중요성을 숙고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온전한 의미의 도덕적 인과성은 인공적 행위물이 아닌 인격적 행위자에게만 속하므로, 인공지능에 관련된 과정, 특히 학습, 교정,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한 과정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파악하고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적(bottom-up) 방식과 심층적 신경망은, 인공지능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지만, 인공지능이 채택한 그 해결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로써 책임 규명이 복잡해진다.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산출하는 경우에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결과가 중장기적으로만 명확해질 수 있는 복잡하고 고도로 자동화된 환경에서 이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는 과정의 특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까닭에,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내린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의사 결정자인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의사 결정 과정의 각 단계에서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이 가능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45. 책임자를 결정하는 것 외에도, 인공지능 시스템에 부여된 목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비지도 자율 학습 기제’(unsupervised autonomous learning mechanisms)를 사용하고 이따금 인간이 재구성할 수 없는 경로를 따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 부여한 목표를 추구하고 설계자와 개발자

가 설정한 과정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이는 하나의 도전을 제기한다. 인공지능 모형들이 점점 더 독립적인 학습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이 인간의 목적에 봉사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인공지능 모형들에 대한 통제력은 실제로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떻게 해야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사람들의 선의를 지향하고 사람들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질서 지어지도록 보장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46. 인공지능 시스템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책임은, 우선 그 시스템을 개발하고 제작하며 관리하고 감독하는 사람들에게 있지만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언급하셨듯이, 기계는 “잘 정립된 기준이나 통계적 추론에 기초하여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기술적으로 선택한다. 그러나 인간은 선택할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위임한 권한에 대하여 결국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의사 결정을 도울 수 있으려면, 이를 구동하는 알고리즘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정보 불일치를 처리할 정도로 충분히 견고하고, 편향성과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줄일 수 있게 그 작동 방식이 투명해야 한다. 규범적 틀은, 투명성과 생활과 책임성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와 더불어, 모든 법적 단체가 인공지능 사용과 그 모든 결과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인공지능 사용자들은 결정을 내릴 때, 인공지능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이미 높은 현대 사회의 기술 의존도를 더욱 부추기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7. 교회의 도덕적 사회적 가르침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행위 능력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도록 돕는 자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정의에 관한 고찰은 공정한 사회 역동성을 장려하고 국제 안보를 유지하며 평화를 증진하는 문제들도 다루어야 한다. 개인과 공동체는 인류에게 유익한 방

향으로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방안을 현명하게 식별하는 동시에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거나 환경을 해칠 수 있는 방향으로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책임’의 개념은 좁은 의미에서만 아니라, “그저 달성한 결과들을 설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타인을 돌볼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48. 따라서 인공지능은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선으로 부름받은 인류 소명에 대한 의식적이고 책임감 있는 응답의 일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한 대로, 인공지능이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보장하며 이러한 소명에 부응하려면 인간 지성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 “고귀한 존엄성”을 인정하며 “사회 질서와 그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비추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공지능의 사용에는 “공동선의 관점에 기초한 윤리, 곧 타인과 피조물 전체와 이루는 관계에서 사람들의 충만한 발전을 증진할 수 있는 자유와 책임과 형제애의 윤리”가 따라야 한다.

V. 특수한 문제들

49. 이러한 전반적인 관점에서, 앞서 언급한 주장들이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안하신 ‘마음의 지혜’에 따라 실제 상황에 윤리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 주고자, 여기에서는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논의가 전부는 아니지만, 인공지능이 인간 존엄성을 옹호하고 공동선을 증진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하는 대화를 위하여 이 논의를 제시하는 바이다.

인공지능과 사회

50.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인간이 타고난 존엄과 한 인류 가족의 구성원으로 우리를 묶어 주는 형제애가 신기술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그 사용에 앞서 이를 평가하는 데에 확고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 계속〉